

# 서양 따른 용어 혼란 미술사학은 쇠락의 길로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팔메트→제3영기씩 넝쿨모양 영기문



지금까지 인동당초문을 3회에 걸쳐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인동초란 원래 덩굴이어서 인동당초라고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미술사학에서는 굳이 인동당초라 부릅니다. 실은 인동당초가 아니고 제3영기씩을 전개시킨 생명 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임을 이제 아셨지요? 그런데 인동은 무엇이고 팔메트는 무엇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팔메트! 서양미술사학에서 흔히 쓰이는 매우 중요한 용어가 어찌하여 동양미술사학의 중요한 용어가 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구나 할까요? 동서양 미술품 모든 장르의 어디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늬이며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그 팔메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동서양의 팔메트는 뿌리가 같은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요? 도대체 팔메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단지 종려나무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양의 팔메트는 잘못 붙여진 용어이며, 동양과 서양은 같이 팔메트라 불러도 각각 전혀 다른 조형임을 알게 될 것이다.

Palmette(팔메트)는 사막지역에 많은 종려나무인 Palm(종려나무)의 축소형인데 그 나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동서양미술에 그토록 많은가요? 그토록 중요한데 동서양 미술사학자들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일까요? '이토츠타'라는 일본 건축가의 원로가 인동(忍冬)을 팔메트라고 번역함으로써 우선 '첫 번째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는 허니 서클이라는 영국에서 쓰는 인동초를 팔메트라와는 전혀 다른 식물인데 팔메트라고 번역했을까요? 프랑스와 독일에서 쓰는 용어

인 팔메트와, 영국에서 쓰는 용어인 허니 서클(인동초)은 각각 다른 것인데 왜 서양에서는 같은 조형을 두고 나라마다 다른 식물로 부르는 것일까요? 더구나 동양학자들은 그 두 가지를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같은 조형이지만 인동초라고 하지 않고 굳이 팔메트라고 부르는 조형이 따로 있으니 항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런 습관도 이상하지 않은가?

팔메트라고 하면 우선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아크로테리온'이란 용어는 그리스-로마의 신전(神廟)의 지붕 위에 장식하는 채색기와나 조각상이나 만병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꼭대기'란 뜻이다. 엔시미온(anthem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박공의 꼭대기나 구석을 장식하는 것으로 주로 팔메트 모양이 많다. 그런데 그 모양이 넓게 확산하는 모양이 종려나무와 같다고 하여 팔메트란 명칭으로 불린 이래 지금까지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널리 쓰이고 있다. '팔메트(Palmette)'란 나무는 없고, 팜(Palm)이라는 종려나무를 가리키나 종려나무를 무늬화한 조형을 팔메트라 부르고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그리스 첫 여행에서 본 수니온의 아폴로 신전의 동쪽 페디먼트(박공)의 중앙 꼭대기에 장식했던 아크로테리온이었다. 처음 그 조형을 보았을 때 팔메트라 아니고 영기문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벅차 두근거렸으며 그 후 8년 만에 채색분석하여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그림 ①-1, 그림①-2) 높이 1미터 50센티인 그 조형은 기본적으로 갖가지 제3영기씩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

영기씩 갈래 사이에서 만물이 화생하는데 만물을 삼각형 모양으로 상징했다. 즉 영기화생한 만물에서 다시 영기가 발산한다는 영기화생(靈氣化生)의 원리에 의해 길게 발산하는 영기 가닥들을 노란 색으로 칠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산하는 추상적 영기문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긴 잎처럼 확산하는 종려나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팔메트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다.(그림 ②) 보이지 않는 영기를 구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형태가 여러 가지인 까닭이 거기에 있다. 만일 종려나무 잎이라면 한 가지 조형으로 나타내야 했다.

가장 간단한 아크로테리온은 하나의 단위 무늬를 이루는 것으로 가장 많다.(그림 ③) 원래 색이 없는 것을 필자가 채색분석한 것(그림④, 그림⑤) 고대의 원래 채색을 살린 것 모두가 기본적으로 제3영기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갈래 사이에서 나오는 만물을 상징하는 조형에서 길게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것은 잎이 아니요, 발산하는 영기를 조형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건축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아크로테리온에 집약되어 있다.

특히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아크로테리온은 높이가 무려 4미터!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인데 역시 장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아크로테리온이 제우스 신전의 신과 신전이라는 우주의 축소에서 발산하는 영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서양미술사는 영기화생론을 모르고는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⑥-1, 그림 ⑥-2) 맨 위의 아름다운 곡선들은 결코 종려나무인 팔메트라 아니고, 영기문이다. 영기문은 무엇이나 아름답고 유려하다.

그리스 신전에서 발산하는 강력한 영기를 밝히게 된 것은, 내가 한국의 공포와 지붕 위의 갖가지 용과 보주의 상징을 풀었기 때문이었다.



그림 ①-1 수니온의 포세이돈 신전, 동쪽 페디먼트의 중앙 아크로테리온, 기원 전 440년경. 영어 설명, tendrils(덩굴), acanthus leaves(아칸서스 잎) and anthemion(anthemion의 복수, 인동당초)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갖가지 제3영기씩 넝쿨모양 영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



그림 ③ 채색분석, 노란 색으로 칠한 것이 영기문이며 잎이 아니다



그림 ⑥-1 파르테논 신전의 아크로테리온, 기원 전 438년경, 대리석, 높이 4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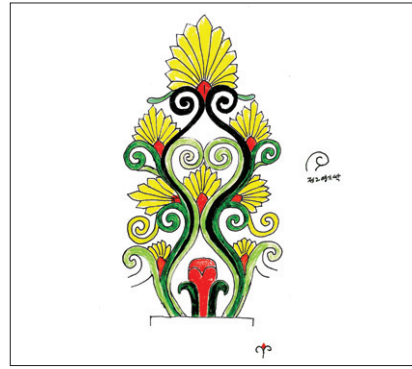


그림 ①-2



그림 ④



그림 ② 종려나무



그림 ⑤



그림 ⑥-2

## 藥 이 되는 사찰음식



### 쌈밥

△재료(4인 기준)

- 보리밥 - 뽕쌀 1컵, 찰쌀 1/2컵, 늘보리 1컵
- 옥수수밥 - 뽕쌀 1컵, 찰쌀 1/2컵, 간 옥수수 2컵
- 모듬쌈 - 당귀, 쌈배추, 겨자잎, 케일 등

### △만드는 법

① 보리밥 - 늘보리는 뽕뽕 문질러 씻어 2시간 정도 불린 후 1.5배 정도의 물을 부어 보리밥을 먼저 지은 후 20분 정도 불린 뽕쌀과 찰쌀에 1.2배 정도의 물을 부어 밥을 짓다가 물이 자작해지면 보리밥을 넣어

같이 뜬을 뜬다.

② 옥수수밥 - 옥수수는 삶은 후 알맹이를 발라 놓고 20분 정도 불린 뽕쌀과 찰쌀에 1.2배의 물과 옥수수 알맹이를 넣어 밥을 짓는다.

### 여러 가지 쌈장

△재료(4인 기준)

- 약고추장 - 고추장 1컵, 과일즙(사과, 배, 파인애플) 1컵, 생강즙 3큰술, 간장 2큰술, 꿀 1큰술, 참기름 2큰술, 잣 3큰술
- 견과류 쌈장 - 된장 1/2컵, 고추장 2큰술, 맛국물 1/3컵, 다진홍고추 2큰술, 다진 청고추 3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견과류 1/2컵(호두, 잣, 호박씨, 잣)



- 강된장 - 된장 3큰술, 표고버섯 3장, 호박 50g, 호박잎 5장, 홍고추 1개, 청고추 2개, 청랑고추 2개, 맛국물 2컵
- 파리고추 쌈장 - 고추장 1/2컵, 맛국물 1/3컵, 매실청 3큰술, 생강즙 1큰술,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파리고추 100g

고추 100g

### △만드는 법

- ① 약고추장 - 냄비에 고추장과 과일즙, 생강즙, 간장을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다가 약간 무른 정도의 농도가 되면 꿀과 참기름을 넣고 불을 끈다음 그릇에 담고 잣을 올려낸다.
- ② 견과류 쌈장 - 냄비에 약간의 기름을 둘러 다진 홍고추, 청고추, 된장, 고추장을 넣고 볶다가 맛국물을 부어 끓인다.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불을 끈 후 그릇에 담고 다진 견과류 올려낸다.
- ③ 강된장 - 표고, 호박, 청홍고추는 잘게 썰고 호박잎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잘게 썰어 냄비에 넣고 볶다가 된장과 맛국물을 부어 자작하게 끓여낸다.
- ④ 파리고추 쌈장 - 냄비에 고추장과 맛국물을 넣어 볶다가 농도가 나면 매실청,

생강즙, 간장을 넣고 끓이다가 1cm 정도의 길이로 썬 파리고추를 넣어 숨이 죽을 정도로 익으면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 불을 끈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 보리쌀, 콜레스테롤 저하·정장 작용

여름이 무르익어 가는 이맘때쯤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텃밭에서 갓 뜬 온갖 가지 야채와 구수하고 칼칼한 여러 가지 쌈장에 갖지는 잡곡밥을 싸 먹는 쌈밥이 그리워진다. 폭 불려 무르게 지은 보리밥과 햇옥수수를 넣어 지은 밥은 입 안 가득 톡톡 터지는 단맛이 일품이다. 보리쌀에는 점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주고 정장작용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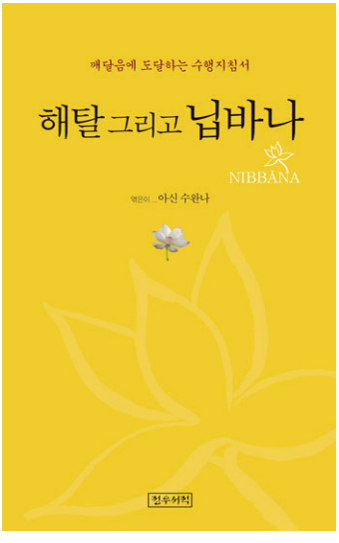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 해탈 그리고 님바나

화계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 범부중생에게는 갈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대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 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학회 회장 퇴원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우란분절 범보시 특별함인!**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리

**만화 지장경**

정일선사 지음  
46페이지 | 흑백 | 304쪽 | 12,800원

**정일 선사, 지장경 300독 후 '이렇고?' 화두 내려**

지장경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한 대승경전. 갖가지 신통력으로 아수라, 지옥, 아귀, 육도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려는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말씀하신 경이다. 조계종의 대표적인 선사인 정일 스님(선학원 이사장, 보광사 조실 역임)은 생전에 <지장경> 300독 독송을 통해 불심과 신심, 효심을 배양하고 이를 참선수행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강조해 왔다. 이 만화는 정일 선사가 직접 감수한 책.

비밀과소통 www.facebook.com/BlumSol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비로보인 신문연승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답승.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